

영암군, 1회 추경 역대 최대 5천230억 편성

본예산 대비 977억 증가 연말 6천억 달성 여부 주목 일자리창출 등 집중...주민생활 직결 사업 대폭 반영

영암군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5천230억원을 편성, 군 의회에 제출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은 본예산 4천253억원 대비 977억원(22.96%) 증가된 지난해 최종예산 5천29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영암군은 지난해 지역 경기 침체와 산업 고용위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영암군 지방재정을 확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확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연말 6천억원 달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3천844억원 대비 880억원(22.89%) 증가한 4천72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78억원 대비 2억원(0.1%) 증가한 80억원이다.
또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332억원 대비 94억원(28.5%)이 증가한 426억원을 편성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천257억원(24.03%), 농림해양수산 분야 1천171억원(22.4%), 수송 및 교통 국도 지역개발 분야 715억원(13.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은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립과 도

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87억원, 노후 상수관과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7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해소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의는 오는 29일까지 제26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영암=이봉영기자

이승옥 강진군수, 지역경제 살리기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방문 국비 지원 건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 초점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진군은 18일 "최근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던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강진군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전남 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 칠랑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1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7억원 등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및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이며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항상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하천 정비로 통해 재해 사전예방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2억원 중 국비가 41억원을 차지하며 2020년 실시계획 및 보상에 필요한 국비 4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강진군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체류형 관광지 기반 사업 등 지역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주민 등의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적극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정영록기자

전남 공무원 교육원 이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도담면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신축으로 인한 오수량 증가에 예상돼 원활한 오수 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신전

면 사조마을 해안지역에 주택, 관광객 증대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에 해당되며 강진만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칠랑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 공원, 쉼터, 방풍림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과 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윤종인 차관에 이어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을 만나 강진군 2개소 소하천정비사업(강진읍, 작천면)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

'목포시우리동네가이드' 인기 절정 자원봉사 등 목포 홍보 역할 톡톡

목포시우리동네가이드가 지난 15일부터 활동에 돌입,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우리동네가이드란 순수하게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목포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 찾아온 외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동네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 만호동, 유달동에서 30~40년 이상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이 최근 대한민국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1897개항장 거리, 근대역사공간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를 자청하고 우리동네가이드로 나선 것이다.

우리동네 가이드들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 물



에 알고 있는 숨은 맛집을 동행, 소개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동네가이드 김모씨는 "목포의 변화를 실감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목포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알려서 목포가 더 큰 발전을 이루는데 자그마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음에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하고 특이 식사는 어디가 괜찮냐는 질문에는 평소



해남 보해매실농원 매화축제 성료
해남 보해매실농원 매화축제가 지난 16-1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 규모인 46ha 면적의 보해매실농원은 1만 4천여그루 나무에서 매화가 활짝 피어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문화공연, 매화사진경매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제공됐다.
/해남군제공

함평군, 청렴도시 명성 되찾기 박차

3대 역점과제 24개 세부시책...관행 부정행위 타파

함평군이 청렴도시 명성 되찾기에 나선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말 3대 역점과제와 24개 세부시책을 주요 골자로 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제시했다. 2013-2014년

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하락하게 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청렴 PC 화면 보호기 설정 운동 ▲행동강령 문자 알림 ▲갑질 신고센터 운영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함평군 청렴명예

감사관제 운영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격주 수요일마다 간부 공무원이 진행하는 청내 청렴방송 '나는 청렴 공무원이다'를 새롭게 추진하며 동료 간 청렴사례 공유, 간부로서의 청렴 마인드 재함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일상적인 부패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 받는 'Top pick' 제도도 새롭게 운영해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에 전 직원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기자

완도군 역도실업팀 전용 훈련장 완공

완도군의 유일한 실업팀인 완도군청 역도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됐다.

완도군은 18일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의 오랜 숙원인 전용 훈련장이 완공돼 차세대 역도 유망주 발굴은 물론, 국내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업팀의 전용 훈련장은 완도 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지상 1층(훈련장, 체력단련장), 지상 2층(사무실) 규모로 총 5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준공, 4년여 만에 전용 훈련장을 갖게 됐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감독 허진)은 선수 4명(완도 출신 1명)에 감독 1명, 총 5명으로 구성돼 2018 한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금 3, 은 4, 동 2), 제57회 전남도체육대회(금 4) 등 각종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완도군을 알리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도실업팀 허진 감독은 " 그동안 전용 훈련장이 없어서 완도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해 왔는데 전용 훈련장이 생겨 선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해 완도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라키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 문의. 010-6834-7400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